

절대평가·세부성적공개제도 확정...학생 학습권 보장 고려

5주간 모든 수업 비대면 진행
‘비대면수업 기본 원칙’ 마련
중간고사 비대면 결정은 아직

허지영 기자 krjy000224@khu.ac.kr

지난달 28일 학사지원팀은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개강 후 10월 4일까지 5주 가량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비대면 수

업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 2학기 학위 과정 내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론 및 실기 강좌 모두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10월 5일부터는 이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비대면수업 기본 원칙’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강사는 학기 당 수업일수인 15주를 준수해야 하며 휴강으

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반드시 보강을 진행해야 한다. 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은 수업 1시간 당 이론 강좌 25분 이상, 실기 강좌 10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콘텐츠 재생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시간은 수업시간 1시간당 50분 이상을 권장한다. 이때 학습시간은 강의 자료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발표, 과제, 기타 온라인 학습활동 시간 등을 포괄한다.

학생 피드백을 토대로 한 권장사항도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수년

전에 제작되거나, 화질 또는 음질이 좋지 않은 영상자료는 지양해야 한다. 강의자료 업로드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강의시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학생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또한 제공해야 한다.

학사지원팀 전준하 행정주임은 “비대면 수업을 결정할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

지된 바와 같이 10월 5일부터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라며 “차주 열릴 비대면수업 TF를 통해 수렴될 학생 피드백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학교는 2학기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확정하고, 성적 공지 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세부성적공개제도를 의무화한 바 있다.

1면에서 이어짐

반환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남순건 서울 학무부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인정하지만 등록금의 20%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며 “각 단과대학과 대학본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입 감소로 현재 학교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은식 국제 학무부총장 또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꼈던 손실감은 인정한다”면서도 “학교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기존의 “등록금 20% 반환안”에서 절반을 줄인 ‘10% 반환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학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등록금 반환 회의 진행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합의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양측 시각차도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학이 장래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 놓는 ‘적립금’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선을 그었다. 서울캠 총학 정경원(회계세무 2016) 부회장은 “우리 대학은 적립금 1000억 원 이상 보유 대학으로 교육부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본부는 재원 마련 계획으로 지출 감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축된 적립금 등 여러 재원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부총장은 “또 다른 긴급 상황 발생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 사용은 논외로 하자”며 “학교가 마련할 수 있

는 최대한의 재원을 마련해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회장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회 “20%반환·적립금 활용” 대학 “재정 여의치 않아, 적립금 활용 불가”

1차 회의 때 합의하지 못한 특별 장학금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2차 등록금 반환 회의가 열렸지만 또 다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차 회의는 서울캠 본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정이 연기되면서 8월 21일 국제캠에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적립금 사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학교 적립금을 사용하자는 학생들의 주장에 학교 측이 지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 불가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서울캠 최 회장은 “1차 회의 때 요구했던 적립금 사용 불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학교 측이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냐”며 “특별장학금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1학기 재학생 실 납부액의 2%에 불과한 것 또한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조진성 기획조정처장은 “적립금은 경영 위기 상황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은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학교 측이 재정 악화를 주장하면서다. 조 기초처장은 “총학이 1차 회의 때 요구한 1·2학기 재학생 실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예

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단과대학 자율 운영 예산 중 미집행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부총장은 “학교는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논의에도 특별장학금 액수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서울캠 총학 정 부총학생회장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며 “총장을 직접 만나 적립금 사용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남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권을 부여받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재차 밝히며 총학의 제안을 일축했다.

2차 등록금 반환 회의 “지지부진” 양캠 총학생회장 본관무기 대기

두 차례의 회의에도 특별장학금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장실 항의 방문을 강행했다.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총장 주재의 3차 등록금 회의를 약속받았지만, ‘적립금 사용 불가 근거’와 ‘지출감소분 내역’ 자료 공개에 대해선 거부하자 두 총학생회장은 무박 3일의 본관무기한 대기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총학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회계 상의 이유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총학 요구로 한균태 총장이 주재하는 3차 등록금 반환 회의(3차 회의)가 8월 27일 국제캠 대회의실에

서 열렸다. 3차 회의에서도 지난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특별장학금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가 진행됐다.

학생 측은 “학교 측 제안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하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며 “보다 발전적인 소통을 위해 기존 요구했던 적립금 관련 자료 요청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운영비 미집행 내역’ 요구안에 대해선 기존과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체 절감분과 추가 지출 관련 목록을 통해 코로나19가 학교 재정에 변동성을 주었음을 확인했다”며 반환비율 합의에 앞서 검토를 위한 자료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현재 총학이 요청하는 자료의 공개 범위와 구성은 학교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현시점은 1년 회계가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연말에 결산이 공시되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충 위한 ‘교육환경개선안’ 제안

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양 캠퍼스 총학은 절충안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개선안은 ‘교무처장 주재의 학사운영 TF’, ‘본부 지침 미준수 교강사 파악’, ‘이캠퍼스(e-campus) 등 비대면 플랫폼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캠 총학 정 부총학생회장은 “2학기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교육환경개선안을 학교 측이 약속해준다면 절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양보의 여지를 남겼다. 학교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한균태 총장은 “학교의 핵심 가치가 교육과 연구에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지는 제안에 학교가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본 개선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차후 회의에서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학교 측은 4% 수준의 등록금 반환비율을 제안했다. 한 총장은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권 침해와 주변 대학 반환비율을 고려했다”며 “실 납부액의 4%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재원은 현재 단과대에서 환수한 미집행 예산과 아울러 2학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익, 동문 모금 캠페인을 통한 기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애기했다.

등록금 실납부액 5% 반환 확정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한 학생 측 자료 공개 요구가 재차 이어지면서 논의는 잠시 답보 상태에 놓이기도 했지만, ‘1학기 졸업생’이 변수가 되어 급물살을 탔다. 만약 8월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9월 1일을 기점으로 재학생 신분을 벗어날 졸업생이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맥락에서다. 이에 총학이 28일 오전까지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3차 논의는 마무리됐다. 이후 28일에는 양측이 등록금 비율 5%(32.5억)라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3차 회의에 이어 28일 오전까지 이뤄진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통해서다. 양측이 합의한 등록금 반환비율은 기존 총학이 주장했던 10%의 절반 정도지만, 학교가 최초 제안한 비율(1%)보다 4%, 마지막으로 제안한 비율(4%)보다 1% 상승한 비율이다.